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⑳ 조동선풍의 한국적 전개



▶ 한줄 요약
조동종의 가풍은 교단의 측면으로는 미미하였지만 그 중요한 교의는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면면하게 전승되어 왔다.

고려 초 조동선풍은 운거선풍이 절대적

1. 조동선풍의 형성

당나라 말기 9세기 중엽에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와 그의 문하인 조산 본적(曹山本寂, 840~901) 및 운거 도응(雲居道膺, ?~902)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동종(曹洞宗)은 한국 및 일본에서 오늘날까지 면면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경덕전등록〉에는 동산 양개의 법사로서 26명의 이름이 전한다. 이들 가운데 조동종의 교단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운거 도응과 조산 본적이다. 도응은 동산 양개를 15년 동안 모시고, 입적한 이후에도 탈상할 때까지 2년을 더 동산에 머물러 총 17년 동안 동산에 주석하였다. 이후로 운거산으로 들어가 20년 가까이 주석하면서 1000명이 넘는 대중을 거느렸다. 이들을 통해서 초기 조동종의 교단의 형세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고려 초기에 전승한 조동선풍은 운거의 선풍이 절대적이었다.

〈조당집〉에는 동산으로부터 도응으로 계승되는 일련의 선풍이 전수(展手)·조도(鳥道)·현로(玄路)의 동산삼로(洞山三路)와 괄골선(刮骨禪)이 강조되어 있다. 전수는 유인하여 접화하는 방편으로서 중생을 화익(化益)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도는 불염오(不染汚)의 수행을 비유한 것으로 어떤 흔적도 남겨두지 않는 자유무애한 납자의 수행으로, 분별이 초월되고 집착이 단절된 소식이다.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그 종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모습이다. 현로는 현묘한 길을 의미하는데, 유무(有無) 및 미오(迷悟) 등 이견(二見)을 초월한 공적한 길을 가리킨다.

또한 괄골선이라는 용어는 조동종 선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주도면밀(周到綿密)과 용의주도(用意周到)의 정신을 나타낸다. 일상의 행위에서 매사에 소홀함이 없이 여법하게 용심하는 모습이 마치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엄격한 수행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의 자립을 강조한 말이다. 괄골선의 선풍은 운거 도응으로 계승되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별의 언어에 대한 집착을 배제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언어를 지니고 그것을 진실하게 자각할 것이 강조되었다. 마치 몸에 들어간 독은 뼈를 쪼개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점에 비유한 것이다. 이들 동산삼로와 괄골선은 결국 용의주도하고 주도면밀한 조동의 행지를 지향하는 가풍을 드러낸 것으로서 독특하다. 기타 조동종지로 중요 시 된 것은 일체의 상을 초월하여 종적을 남겨두지 않는 몰종적(沒蹤跡)의 수행을 중시하였고, 제일의제(第一義諦)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에 근거한 본증(本證)을 강조하였으며, 바로 현재의 자리에서 깨칠 것을 도모하는 직하승당(直下承當)과 모든 깨달음은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현성공안(現成公案)을 체험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동가풍을 언급할 때 소급하여 청원 행사(靑原行思, ?~740)로부터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및 약산 유엄(藥山惟儼, 751~834) 그리고 운암 담성(雲岩曇晟, 782~841)에 속하는 선풍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조동가풍에서는 석두의 〈참동계(參同契)〉 사상을 조동선지의 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까닭은 〈참동계〉에서 설파한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를 비롯한 기타의 사상적인 뿌리가 본격적인 조동종지인 조동오위(曹洞五位)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산 양개와 다른 항렬로서 도오 원지(道吾圓智, 769~835) - 석상 경제(石霜慶諸, 807~888)의 문하인 동안 상찰(同安常察, ?~961)이 지은 〈십현담(十玄談)〉의 선리(禪理)까지도 포함시켜 두고 있다. 그 까닭인 본래 화엄교학의 십현(十玄)을 빌려 칠언율시의 형식으로 저술한 것인데, 순서대로 심인(心印)·조의(祖意)·현기(玄機)·진이(塵異)·불교(佛敎)의 다섯 항목에 대해서는 선종의 요지(要旨)를 서술하였고, 환향곡(還鄕曲)·파화향곡(破還鄕曲)·회기(回機)·전위(轉位)·정위전(正位前)의 다섯 항목에 대해서는 납자가 수행으로 경력해야 하는 요로(要路)를 서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산 양개의 오위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열 가지의 조목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십현담〉에 대하여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은 〈십현담청량화상주(十玄談淸涼和尙註)〉를 남겼다.

2. 한국에서 조동선풍의 전승

조동가풍이 한국에 전승된 것은 신라 말기에 낭공 행적(朗空行寂, 832~917)에 의해서였다. 낭공대사는 입당하여 석상경제의 법을 계승하였다. 이후로 고려 초기에 조동종풍을 전승한 인물로는 중국 조동종 제2세 운거 도응의 문하생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해동의 사무외대사(四無畏大士)로 불렸던 이엄(利嚴)·경유(慶猷)·형미(逈微)·여엄(麗嚴)을 비롯하여 20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조동종의 세력이 미약해진 결과 고려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그 법맥의 전승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진각 혜심(眞覺慧諶, 1178~1234)이 찬술한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30권에 인용된 내용으로 보면 단일 문헌으로는 송대 조동종의 굉지 정각(宏智正覺)의 〈굉지선사광록(宏智禪師廣錄)〉에 가장 많이 의거하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



진각혜심 진영.

동산삼로(洞山三路)와 괄골선 강조
주도면밀·용의주도 정신의 괄골선
종적을 남기지않는 몰종적 수행중시
넓게는 석두 참동계 연원으로 간주
고려에 최초로 조동종 전승한 낭공
중국운거 도응문하생 주류 형성돼

이보다 약간 이후에 가지산파에 속하는 보각 일연(普覺一然, 1206~1289)은 조동종지의 중요한 선리인 조동오위에 대하여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혹은 〈중수조동오위(重修曹洞五位)〉 3권을 찬술하였다. 이것은 일찍이 중국의 조동종에서 형성되고 전승된 오위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나아가서 오위의 전승에 관한 몇 가지 이견에 대하여 조동종의 정통성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제명에 보이는 '중편(重編)' 내지 '중수(重修)'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기존에 송 대에서 편찬되었던 오위설에 대한 문헌을 집대성하여 재편했다는 의의와 함께 한국의 선종사에서 오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문헌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일연은 기존에 편찬된 조동오위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중편한 이유에 대하여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동산 양개 시대의 가르침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지러워지고 단절될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처음에 조산 본적이 갖가지 주석을 붙이고, 그의 제자인 조산 혜하(曹山慧霞)가 그것을 편집하였으며, 다시 그 제자 광휘(光輝)가 그것을 해석하여 세상에 유포하였다. 그러나 그 언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법선사(普法禪師) 노겸(老謙)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송본(宋本)을 얻어 중간(重刊)하고, 다시 거기에 조동의 유문(遺文)과 조산(疎山) 및 말산(末山)의 〈어결(語訣)〉을 합하여 하편(下篇)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역시 오류가 많았다. 때문에 일연이 조계의 소융화상(小融和尙)을 만나 의기투합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노겸본(老謙本)을 검열하여 거기에 배열을 변경하고 생략하면서 새롭게 후세의 오위설을 가미하였다.

일연은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중편조동오위〉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확정하였다. 석두의 〈참동계〉와 더불어 조동종지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는 〈보경삼매〉에 대한 작자의 문제를 동산 양개로 확정하였다. 또 '축위송(逐位頌)'에 대한 작자의 문제를 조산 본적으로 확정하였다. 또 오위에서 제사위(第四位) 명칭을 겸중지(兼中至)가 아닌 편중지(偏中至)로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일연의 견해는 원시조동종의 오위에 근거하여 동산과 조산의 오위에 대한 제방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정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구체적인 대목에 대하여 일연은 '동산오위현결(洞山五位顯訣)'에 대해서는 네 곳, 또한 '천동사차송(天童四借頌)'의 경우는 네 곳, 조산 '축위송'의 경우는 세 곳, '원진장로간(元眞長老揀)'의 경우는 한 곳, '보협론(寶篋論)'의 경우는 두 곳, '동산삼구(洞山三句)'의 경우는 세 곳, '정재한한거사조동찬(定齋閑閑居士曹洞贊)'의 경우는 한 곳 등 총 18회에 걸쳐서 자신의 견해를 보왈(補曰) 혹은 보운(補云)의 형태로 가미하여 주석을 가하여 당시까지 전승해왔던 조동오위에 대하여 그 정통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조선 초기에 설잠(雪岑)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중국에서 찬술된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대한 주해인 법안 문익의 〈십현담청량화상주(十玄談淸涼和尙註)〉에 근거하여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를 남겼다. 여기에서 김시습은 다양한 선어록을 인용하여 주석을 붙였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 1475에 설잠이 폭천산(瀑泉山)에서 붙인 '십현담요해서(十玄談要解序)', 선종오가의 종파는 모두 방편이라 설명한 '오파원류도(五派源流圖)', 법안 문익이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붙인 주석에 다시 조목조목 설잠이 해석을 가한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그리고 부록으로 '문수면목(文殊面目)'·'관음묘창(觀音妙昌)'·'보현묘용(普賢妙用)'의 '조주삼문(趙州三門)' 및 '십현담음의(十玄談音義)'를 수록하였다.

설잠의 〈십현담요해〉는 동산 양개의 오위에 근거한 동안상찰의 〈십현담〉이 지니고 있는 오위의 사상을 이어받아 한국에 전승시켰다는 점에 우선 의의가 있다. 나아가서 설잠은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기존의 '오위송(五位頌)'을 하나로 엮어 거기에 주석을 가하고 〈조오위군신도(五位君臣圖)〉의 경우처럼 도해를 곁들인 점은 당시의 조동선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오위의 실천적인 측면을 긍정하여 파악하려 한 점이 엿보인다. 조동선법 특히 오위사상에 대한 설잠의 이러한 노력은 자칫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으로 치우치기 쉬운 동산 양개와 조산 본적 및 운거 도응으로 대표되는 원시조동종의 교의에 대한 몇몇 기관(機關)에 대하여 선수행의 역동성을 모색했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이후 환성 지안(喚惺志安, 1664~1729)은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에서 조동종의 종지에 대하여 그 대의를 향상(向上)에 대한 해명이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방편으로 오위(五位)를 열어서 삼종의 근기를 교화한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서 조동종의 교의에 대해서는 편정오위(偏正五位), 공훈오위(功勳五位), 군신오위(君臣五位), 조산삼타대양명안화상석(曹山三墮大陽明安和尙釋), 동산삼종삼루(洞山三種滲漏), 동산창도삼강요(洞山唱道三綱要) 등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해설을 가하였다. 환성 지안의 〈선문오종강요〉는 이후에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의 〈선문오종강요사기(禪門五宗綱要私記)〉를 통하여 다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근세에 만해 용운(萬海龍雲, 1879~1944)은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를 찬술하였다. 1925년 여름 설악산 오세암에서 〈십현담요해〉를 보고 찬술한 것으로 일종의 불교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행의 모든 주석을 벗어나서 〈십현담〉의 원문에 충실하게 현대적인 주석을 도모한 것이다. 여기에는 〈십현담〉의 의의를 보살행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조동종지의 선사상에 대하여 소위 터럭을 뒤집어쓰고 뿔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피모대각(被毛戴角) 및 인간이 아닌 다른 부류의 중생으로 화현하여 보살행을 펼쳐가는 이류중행(異類中行) 등으로 대변되는 중생교화의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조동종의 가풍은 교단의 측면으로는 미미하였지만 그 중요한 교의는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면면하게 전승되어 왔다.

〈동국대 HK교수〉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